



-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 부활절 특집
- 목장 / 사역국 소식
- 교육부 / EM / 코람데오

## EM 다니엘 윤 성도 1년간 캄보디아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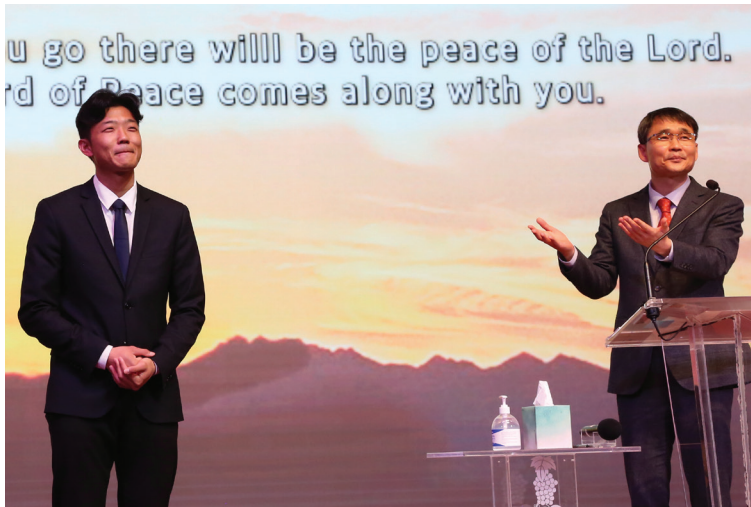
# ‘복음의 불모지로 날 보내소서’

I joined ICCC in 2013 and was part of ICY until I started attending UC Berkeley. I went to a church there called Gracepoint all four years of college and decided to stay in Berkeley to keep serving in our college ministry group. This is because, during college, I grew in my conviction that all Christians are not just saved, but we have a mission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There are so many non-Christian college students in Berkeley, and I've been trying to share the gospel with as many of them as I could, as well as disciple the Christians who were coming to our church. I want to prioritize this because working for the salvation of souls is the best thing I could do with my life.

Last year, Romans 15:20 stuck out to me as I was doing my devotions. "and thus I make it my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not where Christ has already been named, lest I build on someone else's foundation..." I realized that, even though I was trying to preach the gospel to non-Christians, most people I talked to grew up going to church or already heard about Jesus, and I started growing in burden for people who never had the chance to hear the gospel. In the summer, I felt convicted to go on missions somewhere where less than 1% of people are Christian, but I didn't know where to go or who to go with or how long I should go. That's when a friend asked me if I wanted to go with him to Cambodia for a year, and I knew God was calling me to go.

A group of 11 of us will be helping a missionary organization called Not I But Christ (NIBC) located in Siem Reap. We will be supporting their elementary schools and Bible college and helping teach English at local schools. Please pray for many spiritual conversations and salvations! Thank you for your support!

By Daniel Yoon



캄보디아 전도사역을 떠나는 다니엘 윤(왼쪽) 성도가 교우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저는 2013년에 주안예교회에 가족과 등록하여 UC Berkeley에 입학하기 전까지 ICY의 학생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었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내내 Gracepoint라는 교회에 다녔고 대학 사역 그룹에서 계속 봉사하기 위해 Berkeley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시절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이 있다는 확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버클리에는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기독교인들을 제자화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시하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목상을 하다가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에 다니거나 이미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면서 자랐고, 나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에게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확신을 느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얼마나 오랫동안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나에게 1년 동안 함께 캄보디아에 가고 싶은지 물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된 저희 선교팀은 캄보디아 씨엠립에 위치한 NIBC(Not I But Christ)라는 선교 단체를 도울 것입니다. 저희 사역은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성경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대화와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안예교회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 다니엘 윤 성도 |

■ 동남아 3국 선교탐방

## 무슬림 · 불교권에 예수복음의 씨앗을...

우리 주안예교회가 열방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선교현장을 돌아보며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비전을 공유하고 확인하기 위해 운영섭 장로와 저는 지난 3월 3일부터 10일 간 한국을 경유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등 3국을 돌아 보았습니다.

송다윗/이현미 선교사, 송운자/나오미 선교사, 하오셉/조모영 선교사를 만나 각국의 정치, 경제, 종교 및 선교현황을 듣고 매우 열악한 선교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단순히 방문했을 뿐인데 팬데믹 이후 아무도 선교지를 방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문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일행을 선교지로 보내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전도하며 선교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활동을 하다가 고발되는 순간 구속되거나 추방되는 열악



한 환경에서 지혜롭게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몸부림, 교회를 향한 비전으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의 노력들을 보며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금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 우리 주안예교회가 훌륭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한 선교사님들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주안예교회도 하나님의 큰신 은혜

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적으로 기독교, 무슬림, 불교, 힌두교, 천주교, 유교 등 6개 종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타종교도 인정하고 있으나 인구의52%인 말레이인이 모두 무슬림인 무슬림 국가입니다.

<12면에 계속>

| 김경일 장로 |

■ 코람데오 나잇

코람데오 청년부의 밤, 코람데오 NIGHT 3번째 이야기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저녁. 어느덧 3번째 코람데오NIGHT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를 가지는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고, 양태섭 장로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청년의 때에 훈련해야 할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코람데오NIGHT은 특별히 영커플 4목장과 5목장에서 지내오셨던 청년의 시절을 생각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섬겨주셨습니다. 간증을 통해 청년 시



절에 고민하고 영적 전쟁을 해왔던 주제와 경험들을 나눠주셨을 때 저만 이런 고민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의 선배님들도 저와 비슷

한 고민을 하고 이 과정을 이겨내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10면에 계속>

| 이성배 성도 |



■ 주안에라이프 2024

## 배움과 여가 활동 ‘삶에 활력이 넘쳐요’



2024년도 ‘주안에라이프’가 지난 3월 6일 오전 9시 15분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안예교회 교인들과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되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안에라이프는 3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 계속 된다고 한다.

금년 주안에라이프는 성경공부 스마트폰 서예 편물 섹소폰 오토하프 라인

댄스 배드민턴 과일나무 꽃가꾸기 등 20여 종류의 클래스가 개설되어 참가자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향상과 취미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일정은 오전 8:45부터 간단한 아침식사 와 티타임을 갖고 9:15에 예배 후 국민체조를 함께한 후 1교시, 2교시를 마치고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1시간가량 함께 라인댄스로

몸을 풀고 하루 일정을 마치게 된다.

금년 ‘주안에라이프’ 국장 배석원 장로에 의하면 매주 출석하는 인원이 250명 정도 되는 데, 이 인원을 위한 아침과 점심 준비를 위해 매주 20분 정도의 주안예교회 봉사자들이 자진하여 나와서 수고를 하여 주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하였다.

| 나형철 기자 |

### ■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고난주간(Passion Week)은 부활주일 전 한주간을 일컬으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주간임을 말한다. 2024년은 3월 24일(주일)부터 3월 30일(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이 고난주간으로 지켜졌다.

이 시기는 사순절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금식이나 절제가 동반된 경건함으로 지켜야 하는 주간이라 하겠다.

주안예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1주일간의 특별 새벽예배를 드렸다. 최혁 담임 목사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들 통해서 “편리함이 아닌 희생을 감수하는 신앙생활”을 권면하셨고 옥함을 깨트린 여인의 믿음을 본 받아서 “겉으로 보여지는 사랑 보다는 보이지않는 마음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셨다.

박민재 목사님은 금요일 “메시아의 고난의 예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의 징표와 신약에서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전하시며 잠시나마 흐트러진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새벽에는 박기호 목사님께



서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고, 고통 없이 소득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내용으로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큰 덕목임을 강조하셨다.

한 주간 특별 새벽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 다시 비워냄과 내려놓음의 자세를 마음깊이 새기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이 되기를 간구했다.

| 오희경 기자 |

■ 부활절을 맞으며...

## 하나님 사랑, 새 생명 기쁨, 끝없는 감사를...

**이재민 집사** 역사상 예수님 말고는 죽었다 부활한 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국경진 집사** 나의 어릴적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보다는 식용색소로 곱게 물들인 삶은 달걀과 직접 싸 인편으로 달걀에 그림을 그리던 추억으로 가득하다.

청년 때에는 부활의 기쁨보다는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 고난이 내겐 더 크고 아프게 다가왔다. 내가 뭐라고, 우

리가 뭐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통을 받으신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에 마음이 아파 많이 울었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데 죄송하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장년이 된 지금... 이제는 부활이 너무 기쁘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던 천국의 소망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감격으로 눈물이 난다. 주님의 권능을, 전지전능 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 증명하신 그저 '기쁘기만 한 날'이다.

**고한선 권사** 지상 최대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완성된 구속의 완성 표본,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없이는

영원한 새생명으로 태어나는게 불가능하다는 언젠가 들었던 설교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소망을 이루는 키 역할을 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이땅에서의 삶의 시간동안 끝없는 감사를 올려드리겠다 다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현영 집사** 해맑고 철 없던 어린시절 부활절 계란의 의미가 생명이며 또 다른 생명이 다시 태어남을 상징한단 뜻도 모른 채 정성가득 포장된 계란을 참 맛나게 먹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부활절은 일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의 기준에 매일 때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다시 일궈주는 새생명의 징표이자 여전히 연약한 내 믿음을 다시 되돌아 바로 세우는 믿음의 기념일입니다.

■ 임마누엘 성가대 피크닉

주안에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친교모임이 지난 3월 9일, 본 교회 본당 동쪽에 있는 야외 활동장에서 있었다.

45명의 대원들이 12시부터 함께 모여 식사 하며, 지난 시간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고 충성하기 위해 수고한 대원들에게 교회를 대표하여 오찬국 장로가 감사를 표하였고 앞으로의 성가대원으로서 필요한 일들을 의논 하였다.

갈비구이를 비롯한 산해진미(?)로 차려진 음식을 만끽한 대원들은 대장과 임원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모임 장소였던 활동장 주변은 우리 주안에교회 정문에서 동쪽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펼쳐지는데, 지난 10여년간 안 가본 사이에 너무 아름답게 변한 경치에 놀랐다. 금년 겨울에 내린 비로 물 흐르는 양이 많아진 실개천이 중간에 작은 폭포를 이루며 흘렀고 우

거진 소나무 숲으로 인해 멋진 산책로가 이루어져 있었다. 약간의 정리만 하면 우리교회 기관별 활동 장소로 활용하기에 아주 멋진 곳이 되어 있었다.

| 나형철 기자 |



■ 부활절을 맞으며...

# 이웃사랑 · 나눔으로 승화 '내 삶을 주님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당신만을 찬송하며 영원한 사랑에 기쁨의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며,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김지희 집사** 부활절이란 일 년에 한 번씩 치뤄지는 기념행사로 생각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나의 옛 사람은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날마다 성령을 통해 충만한 가운데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됨을 깨달았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기에 세상의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 하고 삶 속에서 소외된 자, 연약한 지체에게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듯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는다.

주님,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일을 내려놓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통해 제 삶에 주님의 사랑이, 나눔이 드러나게 하소서~

**노혜인 사모** 나의 신앙 성장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 같다. 올해는 주님께서 주시는 "끝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 이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 내 삶의 여정속에 주인이 되시어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 하심으로 나에게 삶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가르침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 부활의 새벽

김소엽

죽음으로  
부활하신  
당신.

순종으로  
부활하신  
당신.

날마다  
나만 살아서  
당신을 죽이고  
내가 죽지 못하여  
내 안에  
죽어 계신  
당신.

내 뜻만 나타나  
당신 뜻은  
늘 십자가 그늘에  
숨어있고  
천만번 통곡해도  
부활의 당신을 만나기는  
아직도 먼  
새벽

### ■ 주안에 호프 사역국 모임

2024년 주안에호프 국장님으로 섬기게 되신 전호선 장로님 댁에서 3월 2일 올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푸짐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전미영 권사님의 섬김과 함께 은혜롭고 즐거운 사역 모임을 하였습니다.

식사 전, 재소자 형제 자매들에게 보낼 부활절 카드에 카드를 받고 기뻐할 친구들을 상상하며 메세지와 이름을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그룹 톡으로만 소통하던 새 팀원들의 소개와 사역에 참여하게된 동기를 나누고 중보기도 팀원의 은혜나눔 시간에는 사역을 통해 팀원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섬리를 공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25년간 수감생활을 하고있는 Kenny Lee 형제를 위해 올해 석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주안에 호프 사역이 시작하게 된다고 알려 주시는 전호선 국장님의 발표를 마지

막으로 올해 첫 사역팀의 만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 Acknowledging the Goodness of the Crucifixion

### ■ EM · ICY Good Friday Service

For the occasion of Good Friday, EM and ICY join together as we took part in a special service dedicated to remembering the work of Christ and the suffering he went through for us. The night was filled with spirit-led opportunities, each one narrowing our focus more and more to the cross. The invitation and guidance of praise that led the congregation throughout the night. The vivid visuals given through the video of Christ's crucifixion. The impact of PChris' sermon that emphasized the pure and overwhelming goodness of God's grace that resided within the unbearable suffering Christ went through for us. And of course, the highlight of the night, communion and placing of sins on the cross that allowed for a time for us to take a step back and truly take a good look at ourselves. In doing so, we were given an intentional space and time to truly acknowledge our faults/mistakes. However, it was perfectly paired with acknowledging the goodness of the crucifixion through the act of communion since we know that everything we laid upon that cross, whether it be shame, burdens, sufferings, WHAT-



EVER IT MAY HAVE BEEN... Jesus has taken it all upon himself... a truth that one can't help but feel thankful towards once accepted. And so, to finish the night, we lifted up a song of gratitude and a united voice declaring that we will one day breath the air of heaven. A declaration filled with hope and awe as we glorified our God in reverence and thanks.

Thank You God for giving up Your life for us. It is through that love that we can confidently say we are truly TRULY free and lift up an eternal amen. All glory to the lamb that was slain and rose beyond the grave three days after. Our living and eternal hope that will stand beyond time. Forever amen to the good news that all began on that Good Friday. Amen!

Joshua Kim

### ■ ICY Brother's Appreciation Day

I had a fun time during ICY's 2024 Praise Night/Lock In. I was able to sing my heart out to God and grow spiritually with Pastor Chris' teachings. Small groups with our peers after service allowed us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concerns, which we then had a moment in silence to pray for each other.

The food prepared by the PSG was delicious and we spent the rest of the night having fun with sports and tabletop games. Overall, I was able to deepen my connection with God through service and had a great time within my church community through ICY's 2024 Praise Night/Lock In.

Samuel Moon







■ IC Kidz 달란트 마켓

3월 3일 (주일) IC Now 와 IC Power 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달란트 마켓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스물그룹을 참여 하고 성경구절을 암송하면 달란트(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4개월 동안 열심히 모은 달란트로 각자가 원하는 선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달란트 마켓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스물그룹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이성은 기자 |



■ IC Kidz 부활절 운동연습

은혜로운 찬양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은 키즈룸, power와 now(킨더~5학년) 아이들 35명이 김민재 전도사의 지휘 아래 부활절 찬양 'Because'와 '다시 사셨네'라는 곡을 연습하고 있었다.

근 한달이 넘는 기간 부활절을 위해 전도사님과 찬양도 하며 율동도 익혔을 아이들 모습을 생각하니 기쁘고 사랑스럽다. 'Because'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내가 숨쉬고,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Because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임을 아이들이 평생 잊지 않기를 기도한다.

| 이성은 기자 |



■ ICY Brother's Appreciation Day

of a relay race in which brothers had to complete a series of tasks such as arm wrestling or chugging soda. To fully show our appreciation to the ICY brothers, the sisters planned weeks in advance and also filmed a music video of "I Love You" by Akmu. The brothers do so much and are such an important part of the congregation, and the sisters are all so grateful for every single brother. Through this event, hopefully the brothers were able to feel loved and realize that everything they do for ICY does not go unnoticed. We are all so thankful to be blessed with these brothers in Christ who we will keep growing and walking together in faith with.

Katie Lee

On March 10, the ICY sisters held a banquet of appreciation for our brothers. After the Sister's Appreciation Banquet that the brothers held, the girls made sure to return the love and thanks to

our brothers in Christ. The preparation for this event included baking brownies, decorating the worship room, and coming up with fun games and activities. The activities for this banquet consisted



■ 새가족 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



장태웅 성도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받으며 직장으로 부터 조금 더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에 속하고 섬겼던 공동체와 거리적으로 멀어지게 되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기도하며 찾고 있었습니다.

믿음생활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었고 그러기에 기도 드리며 신중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 주안예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찬양, 대표기도 드리시는 장로님들의 하나님께 마음 다해 열납드리는 기도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 받고 준비하셔서 설교시간에 땀을 흘리시며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귀하고 맛있는 점심의 섬김, 그리고 청년부 사역하시는 귀한 분들의 섬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드리면서 주안예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들었고, 교회의 표어와 같이 성경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믿음을 살아 갈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주안예교회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 뵈고 (요한복음 1장) 매일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을 살아가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갈라디아서 2:20절의 삶을 주안예교회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며 감사 안에서 기대합니다.

말씀 기초한 영적전쟁 지식 '썩썩'



이혁수 성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생으로 와서 학교 근처의 한인교회에 다니다가 여자친구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섬기기 위해 주안예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와 거리가 꽤 있는 교회로 간다는 것이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금요일예배와 주일예배 시간에 담임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에 그 염려와 걱정들이 어느새 모두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 주안예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금요일예배였습니다. 그 날 담임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하셨는데,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말씀을 들어봤지만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시는 목사님은 처음이라 당황하면서도 신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다음주, 그 다음주에도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에 기반하여 영적전쟁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설교말씀을 통해 목사님이 떠먹여 주시는 성경 지식을 쌓아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받는 은혜가 흘러 넘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담임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말씀 뿐만 아니라 어색해 하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코람데오 공동체가 있었기에 주안예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공동체지만 목장모임과 코람데오나잇을 비롯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기도하는 열정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안예교회와 코람데오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 교우동정 / 황영옥 권사 팔순 축하

황영옥 권사님이 수년 전 유방암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지난 해 남편이 갑자기 천국으로 가셨다. 권사님은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잘 섬기시며 여전히 청년처럼 주안예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80살의 연세가 믿어지지 않을만큼 곁에서 보면 할 일을 찾아 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

같은 또래 드림목장의 목사로서 목원을 섬기시는데 주일 점심 때면 목원은 자리에 앉아 있고 혼자 배식을 다 하신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을 섬기는 길에 모두 갖다 드리는 것이 편하다고 하신다.

40년 성가대를 지휘하셨던 실력이 인생의 황혼에 더 아름답게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만 기뻐하실 사역으로 승화 시키는 이즈음을 보내고 계신다.



수요일에는 주안에 라이프에서 오토 하프를 가르치고 계신다. 예전에는 여가 지기 다니며 함께 연주를 했었는데 나이도 먹고, 운전대도 놓아서 활동범위가 작아졌지만 섬기는 주안예교회에 충성할 수 있다며 기쁘게 가르치고 계신다.

“권사님, 건강하게 주안예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더 봉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권사님들과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 이예스터 기자 |



■ 교우 탐방/ 이성근 안수집사 · 이사라 권사

### 3시간 거리 멀다 않고 교회 사랑

목요일 새벽기도가 끝난 후 아침 7시에 두 권사님과 운전으로 수고하여 주실 김현권 목사님 등 네명은 유카밸리에 새로 식당을 오픈하여 그곳에서 새 동지를 틀게 된 이성근 안수집사, 이사라 권사님을 찾아갔다. 사랑이 많은 권사님들은 너무 기도해주고 싶어 방문을 원했고 기다리셨다고 한다. 맛있는 점심을 대접받은 후 함께 대화 나누며 즐거운 차담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일이 많고 힘들텐데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 본당을 청소하는 수고를 하여 주시며 주일 날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기 위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 출발하면 세시간을 운전하여 8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존경스러웠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가정을 돌보지 않으랴! 우리들이 떠날때 손을 흔드는 모습이 웬지 애잔해 보이며 외로워 보였다. 마치 내 자식을 떼어놓고 오는 마음 같은걸 느끼는 것은 무슨 마음일까? 눈물이 핑 돌았다. 이심전심 일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와 삶의 현장이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는 까닭이다.

주안에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모두 함께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어서 감사하다. | 임용자 기자 |



■ 19목장 소식

봄날 흠씨가 정처없이 떠돌다 따듯한 양지에 뿌리내리듯 큰 교회 공동체 속 성도의 일상을 연결해주고 보살펴주는 일종의 신앙의 보금자리와도 같은 교회 속 또 다른 작은 교회인 목장. 19목장은 일찍이 새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용병목장으로 목사님께 선택되어 기존 큰목원을 분가하고 남은 3가정으로 시작해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분과 아직 목장을 선택하지 않으신 교우들을 맞이하기 위해 오래 기도로 준비해 현재는 목자를 포함 총 10가정으로 풍성하게 확장되었다.

저마다 쓸모도 모양도 제각기 다르듯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일상에서 일하고 또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평일에는 줌으로 주일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고 매일 생명의 삶을 읽고 돌아가며 자신의 목상도 고백하며 신앙과 삶의 간격을 말씀으로 채우려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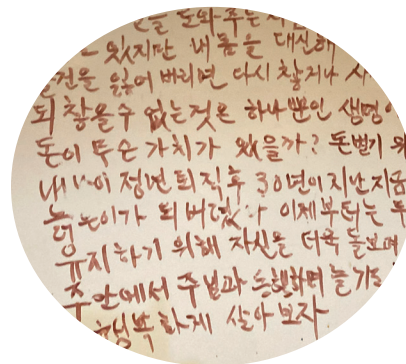
### 연로하신 성도님들 찾아 안부를

올해부터 오승현 목사님께서 심방 목사님으로 섬기게 되었다. 함께 두 분 권사(국장: 임용자, 김수정 권사) 들도 수고하게 되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이 심방하는 날이며 결석한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 혹은 전화 심방들을 하고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심방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24시간, 낮이든 밤이든 때로는 주말에도 관계없이 달려가는 것이 심방국의 본 업무이다.

우리교회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아 출결석에 관계없이 자주 방문하는 집들이 많이 있다. 자주 방문하는 가정중에는 85세이신 문준석 집사님 가정이었다.

혼자 건강하게 사시지만 늘 마음이 쓰인다. 자주가도 통 만나질 못해 애쓰다가 편지통을 열어보니 편지가 쌓여있음에 가슴이 턱 내려 앉는 것 같아 심방국 세명은 각집으로나누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문집사님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았나 알아 본 일도 있었다. 그 다음 방문하였을 때 우리는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집사님께서 맛있는 커피와 다과를 대접해 주셨다. 다이닝룸에



자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써놓으신 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며 저희 심방국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 임용자 기자 |



19목장이란 이름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삼겹줄로 묶인 목원들이 앞으로 늘 기도로 중보하고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길 기원해본다. | 이현영 기자 |



■ EM & 코람데오 볼링 아우팅

On March 10th, ICCC saw another unusual but expected collaboration between EM and Coram Deo at Winnetka Bowling! What started as a simple outing turned out to be a memorable event where members of both ministries got to know one another further! With God, ICCC was able to grow closer once again. Living life together in the presence of God, where each roll of the ball became an opportunity to express joy, converse comfortably, and forge connections that transcended the boundaries of basic social interaction. God showed us that fellowship and His grace can be found in the most unexpected of places- even amidst the sound of exploding pins. | Minhyuk Chang |



■ 코람데오 하이킹

3월 9일 토요일 아침시간 코람데오 가족들과 하이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연한 봄기와 시원한 바람을 즐겼고 하나님께서 모으신 교회모임을 자연에서 가짐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EM 가족들을 우연으로 만나서 신기로우면서도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모이는 시간이 하나님께 찬양이고 모인 이들에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조윤이 성도 |



■ 코람데오 나이트

〈2면서 계속〉 그리고 함께 열심히 연습하신 특송 "행복"을 들

며 청년의 때에 참된 행복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찍부터 오셔서 함께 준비해 주신 맛있는 식사로 코람데오 청년부가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수제로 만들어주신 돈가스, 우동, 샐러드, 반찬, 과일, 음료까지 많은 정성과 사랑을 물씬 느꼈습니다. 영커플로 아이들을 키우시느라 바쁘실 텐데 코람데오를 위해 매뉴 구상부터 장 보기, 재료 준비, 요리, 설거지까지 많이 섬겨주셔서 코람데오NIGHT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특송 '행복'의 가사)을 실천해 주신 영커플 4목장과 5목장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도 주변에 사랑을 나누는 청년부 되길 다짐합니다.





■ 부활절을 맞으며...

## 죽음과 부활 그 사이 어딘가

아빠를 입원시키고 돌아온 일주일 후 '언니 못온다 그만 애쓰시고 편히 가시라' 는 동생 말에 아빠의 호흡이 잦아들자 동생이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불과 한시간 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찬송가를 불러 드리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예 신음소리로 아멘하시던 아빠가 가셨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난 5년은 서서히 사그라지는 아빠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구원에 다다랐는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으로 위태로웠습니다.

급년 초 엄마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거 같다는 말은 불과 석달이 지나지 않아 이리저리한 빨간불이 켜졌고, 괜찮다고 오지말라던 말과 달리 몇년전 색전술 후유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때도 나를 앞서서 맞이하던 아빠는 꺼질 듯 누워 나를 맞았고 "왜 아빠 손을 안잡아줘.. 손 잡아줘야지" 하며 내민 뺨만 앙상한 손과 슬픈 눈동자에 눈물이 나버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금요일 당일 엄마와 함께 병원서류 등을 들어 찾아간 동부 시립병원에서 상담 5분만에 입원허가를 받았고, 월요일 아침 바로 입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할 수 있다던 아빠는 낯선 사람들과 환경에 다소 겁을 먹은 듯도 하고, 당신을 두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아내와 딸의 인사에 그렇 그렇 눈물이 고였지만 그래도 웃

으시면서 사랑한다 내일 또 보자 하셨습니다. 전 아빠의 그 얼굴, 그 천사 같던 미소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 아빠에게 천국문이 열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어설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이틀 후 아빠가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녁 안부인사 대신 전화기 너머로 아빠를 위한 기도를 하고 아빠는 가쁜 호흡에 신음소리로 "아멘~"을 실어보내 주셨습니다. 시간이 더 있을 줄 알고 인격적 혹은 자발적인 동참을 기다린다고 보낸 시간은 사치스럽기 짝이 없는 변명에 불과했고, 숨이 넘어간다는 표현이 피부로 외닿는 다급한 상황은 누구의 눈치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들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며 정말 절실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빠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여유있으셨겠지만 그 확신이 없는 저는 노골적으로 아빠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빠와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으로 집안을 가득채우던 그 일주일, 아빠는 정말로 값없이 얻은 구원에 이르렀고 아마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 천국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 올릴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너무나 어렵지만 또 한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아빠에게 허락되었음을 확신하자 죽음의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는 새 털처럼 가벼워졌고,

태평양너머 아빠의 병실과 퇴근길 차안 혹은 내 방 안에는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듯 편안했습니다. 아빠를 놓아줘야 하는 엄마는 서러운 눈물을 멈출 순 없었지만 아빠 좋은 곳으로 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아빠 너무 미안해하지 않게 웃으면서 보내주자고 하니 엄마의 서러운 눈물도 잦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아빠의 죄는, 나의 죄는 무엇으로 그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떠나보낸 이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그가 예

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알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없는 상처가 없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은 녹여내지 못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을 힘입어 성령님의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환란이나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견뎌낼 만한 힘과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주십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 부활의 기쁨입니다.



채은영 권사

## ■ 드림2목장 모임

지난 3월 2일 드림2목장 친교 모임이 임흥식 집사 임정국 권사 가정 초대로 벨리 소재 Sumo Asian Buffet에서 있었다.

새로 목장에 합류한 목원들 환영회를 겸한 친목회였는데 대부분의 목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서로 힘이 되어주며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 되도록 유연화,이규환 목자들을 중심으로 노력하자는 모임이 되었다고 한다.

“절차 나이가 들어가며 간과하기 쉬운 일들을 서로 일깨워주고 자녀들이 독립해나간 빈자리의 허전함을 채워주며 함



께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드림 목장을 따로 조직한 뜻이 아닌가 생각되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모임 계획” 이라고 이규환 장로가 말했다. | 나형철 기자 |

■ 제6회 세마 장학회 성경암송

##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선교사 자녀들도 동참

제6회 주안예세마 장학회의 성경암송 프로그램이 지난 2월 25일에 열린 올해 첫 평가 심사로 시작 되었습니다. 첫 암송 심사에는 킨더가든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약 30명이 참가하여 올해의 과제로 주어진 시편 1편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요한복음 15장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1년부터는 성경암송 실적을 기준으로 칼리지와 대학 진학 예정자들 뿐만 아니라 교육부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평생 잊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에는 주안예교회 협력 선교사들의 자녀들까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안예세마 성경암송 프로그램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일 오후에만 심사가 있을 계획이며 심사위원을 많이 선발하여 암송 심사장을 2곳으로 준비하여 빠르게 더 많은 학생들이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위원들 앞에 긴장하는 학생들과 필기를 더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필기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되었습니다.

또한 공평성을 위하여 ICY 학생 이상은 1절에 1번, IC



Kid는 1절에 1.5번의 힌트만 허락되며 허락된 힌트가 넘을 경우 다음 심사때에 다시 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수여식은 8월 중에 열릴 예정이며 암송해야 할 성경은 시편 1편, 요한복음 15장,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2:1-18, 빌립보서 3:7-21, 야고보서 1장, 로마서 8장 (Extra Credit)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마 장학국장 박탐 집사와 각 교육부 담당 교역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 이크리스 목사 |

■ 동남아 3국 선교탐방

〈2면서 계속〉 그러나 무슬림

국가의 특성상 전도나 선교는 금하고 있습니다. 송운사/나미 선교사는 WEG 선교단체 파송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10년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르네오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한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강성 무슬림지역이고 발전되지 않던 시골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롭게 도시가 변모하며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이 개발되고 경제적으로도 활발해지고 있으나 무슬림지역 특성상 선교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내외분은 초중교생 대상 수학, 영어, 한국어, 컴퓨터 수업과 남학생 대상 축구팀을 운영하여 대회에서 준우승의

성적을 냈습니다.

태국에서 사역 중인 송ㄷ윗/이ㅎ미 선교사는 한국 제주 열방대학(DTS)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후 4년간 열방대학 간사로 섬기고 예수전도단에서 파송 받아 중국에서 10년간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2020년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현지인을 상대로 제자훈련을 진행하던 중 공간의 단속에 적발되어 중국에서 추방되었고, 그 후 태국으로 선교지를 옮겨 방콕에서 중국 대학생 대상 제자훈련과 방콕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하ㅇ셉/조모영 선교사는 현지에서 고등학생인 아들 2명과 함께 선교사로 헌신하여 1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불교국가이면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다른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는 정부에 등록, 정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인구의 95%가 소승불교이고 기독교인은 약 1.8% 수준입니다. 하ㅇ셉 선교사는 대학생 대상 제자훈련 및 예배인도, 조모영 선교사는 그래픽 디자인 전공 및 경력자로 현재 국립대학의 의뢰를 받아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트 디자인 훈련을 지도하며, 훈련 내용에 말씀을 접목하여 복음을 전하며 제자화하기 위한 신앙훈련의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초등학교에서 훈련된 현지인 제자들과 함께 주 1회씩 미술교육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NEWSLETTER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더,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양영, 윤석중,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